

보도 일시	2022. 6. 22.(수) 16:00	배포 일시	2022. 6. 22.(수) 16:00
담당 부서	전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	책임자	과 장 김병철 (063-249-3202)
		담당자	기상전문관 양석종 (063-249-3241)

## 23일 전라북도 요란한 첫 장맛비 시작 - 23일 밤~24일 아침 매우 강하고 많은 비 집중 -

### 주요 내용

- 전라북도 최대 120mm 이상
- 천둥·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~50mm의 매우 강한 비



[ 6월 23일~24일 기압계 모식도 ]

- 전주기상지청(지청장 이용섭)은 23일(목)~24일(금) 전북에 첫 장맛비가 내리고,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많은 비와 함께 시간당 30~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된다며, 인명과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당부와 함께 상세한 기상전망을 발표하였다.

## [ 기압계 전망 ]

- 전주기상지청은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서쪽에서 다가오면서 영향을 주어 23일 오전부터 전북에 첫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였다.
- 어제(21일) 제주도에 영향을 주었던 정체전선은 현재 일본 남쪽해상으로 이동하였으며, 내일(23일) 다시 중국 중부지방에서 활성화되는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전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.

## [ 강수 전망 ]

- 정체전선 상에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23일 오전(09~12시)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.
- (강수 집중) 정체전선 부근으로 저기압에 동반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며 비구름이 더욱 강해지는 23일 밤~24일 아침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,
- (강우 강도) 특히 이 시기를 중심으로 고온의 수증기가 강하게 유입되어, 지형적인 영향이 더해지는 곳은 천둥·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~50mm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24일까지 최대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, 23일 오후부터 전북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였다.

### < 예상 강수량 (23일~24일) >

- 전북: 30~100mm (많은 곳 120mm 이상)

- (유의사항) 도시 내 소하천, 지하도, 우수관 및 상하수도 관거와 저지대 등 상습침수구역과 산간, 계곡에는 물이 급격히 불어나 범람과 침수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점검과 함께 비가 시작되기 전부터는 해당지역의 접근과 작업을 자제하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.
- 이후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정체전선이 남하하여 전북에는 24일 오전까지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고, 25~27일에는 정체전선의 영향권에서 잠시 벗어나겠으나, 무더위와 함께 대기불안정에 의한 소나기가 자주 내릴 것으로 전망하였다.
- 한편, 23일(목)~24일(금)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경로와 강도에 따라 강수량의 변동 가능성이 있고, 호우 집중지역과 집중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, 최신 기상정보를 꼭 확인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.

## [ 강풍 전망 ]

- 23일 저녁부터 전북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시속 30~50km(초속 8~14m)의 바람과 함께 순간적으로 시속 70km(초속 20m) 이상의 강한 돌풍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다고 밝혔다. 그 밖의 지역에도 순간풍속이 시속 55km(초속 15m)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고,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.
- 강한 바람에 의해 야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, 건설현장,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 파손과 간판 등 낙하물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행자 안전과 시설물 점검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하였다.

## [ 풍랑 전망 ]

- 23일 서해남부전해상에는 시속 35~60km(초속 10~16m)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 물결이 2.0~4.0m로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겠고,
- 돌풍과 함께 천둥·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고 전망하였다.